

수신사행록과 근대전환기 일본지식의 재구성

정 훈 식*

차 례

1. 머리말
2. 의례개혁논쟁에서 본 통신사행과 수신사행
3. 수신사행에 나타난 제도와 형식상의 변화
4. 수신사행록을 통해본 일본인식과 지식의 구성 양상
5.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은 수신사행록을 통신사행록과 비교하여 그 변화된 지점 및 일본 지식의 생성구조와 과정을 다각적으로 살피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수신사행은 통신사행에서부터 지속되어온 의례논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에도막부의 식자층에서 제기된 의례개혁안이 양국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었으며 이것이 통신사행의 종결과 수신사행의 시작에 영향을 끼쳤다. 이 의례개혁논쟁에서 보면 수신사행은 통신사행의 연장선상에 있다.

* 부산대학교 강사

수신사행은 비록 통신사행의 기본 방침인 交隣을 유지하였지만 변화된 상황과 조건에 의하여 그 사행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첫째 대마도의 가교역할이 폐지되었다. 이는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로서, 에도막부시절 조선과의 교류를 국가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조선과 대마도 사이의 사적인 관계로 폄하하는 메이지 정권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곧 통신사행을 부정한 것이다. 둘째, 여정 및 견문방식이 변화되었다. 근대적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노정이 변화되고 사행 일정이 축소되며, 여행을 통한 견문방식이 변화되었다. 셋째로 문사교류가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이는 통신사행에서의 문화 시혜적 위치가 근대 문명의 수용적 입장으로 뒤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변화이다.

이 같은 변화와 아울러 수신사행을 통한 지식의 생성과정 또한 바뀌었다. 수신사행록을 통해본 일본지식의 생성과 구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신사행록의 지식추구의 목적은 조선개혁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통신사행록에서 드러난바 지식추구의 최우선 목적인 備倭가 수신사행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목적에서 일본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시찰과 유학이다. 수신사행의 영역별 분화과정에서 시행된 이른바 조사시찰단과 유학은 보다 압축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식추구의 목적과 구성방법의 논리적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동도 서기론이다.

주제어 : 수신사행록, 일본지식, 備倭, 조선개혁, 시찰, 유학, 東道西器

1. 머리말

수신사행은 1876년 조선의 개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1882년

까지 4차례 일본을 다녀 온 짧고도 특수한 대일외교사절이다.¹⁾ 이를 통해 남겨진 수신사행록은 우선 19세기 후반 조선의 대일관계에 관한 양상을 살필 수 있는 텍스트로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역사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기록에 담긴 근대 이행기의 문화적 특성에 주목하거나²⁾, 근대 일본에 대한 인식 양상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³⁾

이 글은 수신사행록의 지식생산의 전반적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수신사행록은 선행시기까지 축적되고 작동된 일본지식의 생성기반, 목적, 방법 등은 물론 전반적 지식체계의 변동을 초래한 텍스트이기도 하다. 사행록은 무엇보다 특정 관점과 세계관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지식을 여하한 목적과 방법 하에 기록하고 축적해온 지식-문화적 텍스트이다. 수신사행록도 사행록의 이 같은 일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급변하는 시기적 상황에서 형성된 특성상 여타 사행록과 달리 지식의 축적과 방법에서 변동기적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수신사행록의 성격과 그 면모를 살피는 데 있어 통신사행록과의 비교가 유력한 방안이다. 그간 연구를 통해 드러난 통신사행록의 의의는 우선 양국의 문화가 서로 만나 문화교류 및 상호인식의 심화를 이루었다는 것에 있다. 사행의 시작은 정치·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를 통해 외교적 안정이 이루어지자 문화교류가 점차 그 중심영역으로

1) 하우봉, 「개항기 수신사행에 관한 일연구」, 『한일관계사연구』 10집, 한일관계사학회, 1999.

2) 김태준, 「일동기유와 서유견문- 서두름과 지리함의 비교문화론」, 『비교문화』 16집, 한국비교문화학회, 1991; 황호덕, 「간문화적 화용과 타자의 형성-『일동기유』의 문사와 수사 배치」,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 2005; 「한자 표상과 서구문명-김홍집 북명서와 『대청홍사필담』」, 앞의 책; 「국민국가의 재현-박영효 『사화기략』의 구어 상황」, 앞의 책.

3) 김윤식, 「한국인의 일본관-일동기유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2집, 한국일본학회, 1976; 조항래, 「병자(1876)수신사행과 대일인식」, 『강좌 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조선사절이 본 메이지 일본」, 『일본문화학보』 45집, 2010.

자리 잡고 특히 이 가운데 문사고류가 주를 이루어 양국의 지식과 문화가 교류되고 상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중요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문학에서 연행록과 함께 정치와 문화가 공명하며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유산을 만들어낸 사례 중 특기할 만한 것이다.

또한 통신사행록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 지식계에 타자인식의 확대와 자아성찰의 심화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⁴⁾ 즉 통신사행록은 수백 년간 일본에 왕래하며 일본지식⁵⁾을 생성하면서 동시에 조선의 세계인식을 심화 확대하는 기나긴 여정을 담고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조선은 통신사행을 거듭하면서 일본을 이해하는 방법과 그 수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지식의 확산과 발달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조선의 지식-문화 풍토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일본이라는 타자를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뜻하며, 그것도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대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수신사행은 비록 상황과 조건이 다르지만 통신사행의 뒤를 이어 동일한 대상국인 일본에 다녀온 외교사절이라 궤를 같이 한다. 이점에 유의하면 수신사행의 양상과 그 기록⁶⁾ 또한 통신사행록의 연장선상에서 살

4)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5, 139-148쪽.

5) 이 글에서 ‘일본지식’이라는 용어는 ‘일본에 대한 앞의 총체적 활동과 그 결과’라는 의미로 쓰고자 한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그간의 연구경향에서 드러나는 이른바 ‘긍정/부정의 일본인식’을 넘어서서 일본의 본질과 실체를 이해하는 지적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 설정이다. 정훈식·남송우, 「조선후기 일본지식의 생성과 통신사행록」, 『동양한문학연구』 29집, 동양한문학회, 2009.

6) 여기서는 김기수의 『일동기유』(1차)와 김홍집의 『수신사일기』(2차), 박영효의 『사화기략』(4차) 등 세 편을 위주로 하여 주변자료를 함께 살핀다. 3차 수신사행에 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3차 수신사행과 동시에 다녀온 조사시찰단의 보고서와 각종 기록이 전해온다.(허동현, 『조사시찰단관계자료집』 1~14, 국학자료원, 2000.) 조사시찰단은 조선외교사절의 임무가 통신사행에서의 통합적인 임무에서 분화되어 전문적인 영역을 띠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종래 통신사행에서 한 번의 행차에 정치 외교 학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역할을 했다면 수신사행에서는 점차 이 역할이 현안해결에 한정되고

필 필요가 있다. 즉 수신사행의 활동과 교류양상, 기록에 나타난 일본인식의 양상과 지식·정보의 구성과정 등에 대하여 상호 대비를 통해 본다면 수신사행록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⁷⁾

2. 의례개혁논쟁에서 본 통신사행과 수신사행

통신사행이 오가면서 양국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은 이미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의례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부침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었다. 통신사행의 의례 개혁론은 통신사의 교류에서 중요한 논쟁의 하나로 그 초기부터 발생하였다. 이 논쟁이 본격화 된 것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에 의해서이다. 갈등이 표면화 된 신묘(1711)사행 전후로 그가 제출한 응접 의례개혁안은 조선에 대한 우월과 멸시의 시각이 깔려있다.⁸⁾ 이러한 논리는 후에 나가이 지쿠잔(中井竹山, 1730~1803)⁹⁾, 마츠다히라 사다노부(松平定信, 1759~1829)¹⁰⁾에게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면면이

대신 일본 물정을 탐색하는 전문적인 임무는 조사사찰단이 새롭게 수행하였다. 즉 조사사찰단 또한 크게 보면 수신사행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특화된 임무를 띤 사행의 하나로 간주된다. 해서 본고는 포괄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텍스트를 언급하도록 한다.

- 7)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통신사행록의 지식 생성에 관하여 살펴 본 결과 일본지식의 목적으로서 備倭, 그 방법으로서의 博覽과 辨證, 그리고 그 사상적 기반으로 서의 華夷와 文物을 상정할 수 있다는 설을 제기했다.(정훈식·남송우, 앞의 논문.) 이 논리를 수신사행록에 적용시켜 비교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8) 강제언 지음, 이규수 옮김,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2005, 217-244쪽.
- 9) 『草茅危言』(1789)에서 ‘조선은 신공의 원정 이후 우리에게 복종하여 조공을 바쳤다. 우리의 속국이다.’ 라고 규정하고 ‘비용을 줄일 것, 통신사행렬의 깃발(巡視, 淸道, 令)이 휘날리지 않도록 할 것, 필담을 제한하여 조선인에게 문화적 우월감을 주지 말 것, 역지병례를 할 것’ 등과 같이 병례개혁을 주장하였다. 강제언, 앞의 책, 335-338쪽.
- 10)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사신을 초빙하는 일은 결코 좋

이어져 결과적으로 그 논리대로 신미년(1811) 대마도 易地聘禮가 시행된 것에서 보듯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실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¹¹⁾ 결국 의례개혁론이 대마도 역지빙례라는 방식으로 실현되면서 통신사행은 막을 내린 것이다.

이 의례개혁논쟁의 측면에서 수신사행은 통신사행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마도 역지빙례 이후로 실무적 차원에서 오간 사신과 주고받은 서계 외에 접할 길이 없었던 일본을 다시 대면하게 된 것은 이로부터 65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¹²⁾ 그러나 그들은 이미 칼을 차고 촌마게(丁鬪)를 한 왜가 아니라 서양식 군함과 총으로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온 근대일본이었다. 그 사이의 역사적 정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시기 동안 일본은 대격변기를 거쳤다. 미국에 의해 개항이 이루어졌으며, 왕정복고운동이 일어나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정부(1868)가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은 정치사상의 대변혁을 동반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정계의 중심으로 부상한 사상과 논리가 皇國史觀과 征韓論이다. 개항이후 일본이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치체제를 일신하는 결단이 메이지유신이라

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일본의 부패한 유학자들이 모두 나와 계림인과 창화를 나누어 속마음을 밝히는 일도 있고, 사신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거리의 성쇠를 보여주는 것 또한 이익이 되지 못한다. 언제나 변성하여 궁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래서 사신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 줄 수 없을 터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순시나 청도라는 깃발을 내세우고 다니는데, 상상관이란 자는 통역하는 비천한 신분이고, 따지고 보면 세 사신 또한 신분이 그다지 높지도 않은데 도쿠가와 집안의 3대 가문이 접대하는 것은 예절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그 예절을 휘어잡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아라이 하쿠세키가 빙례개혁 같은 것을 했다. 그러므로 사신은 쓰시마에서 맞이하여 접대해야 한다. 『宇下人言』” 강재언, 앞의 책, 330쪽에서 재인용.

- 11) 물론 의례개혁론만이 역지빙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경제(재정)적 문제, 정치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260-261쪽.
- 12) 물론 그 사이 실무적 차원의 교류와 서계교환은 이어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명치유신직후의 이른바 서계사건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8년간은 서로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끊어졌다.

면, 중요한 대외정책노선으로 상정한 것 중의 하나가 정한론이다.¹³⁾ 이 논리는 자국 내의 문제와 맞물려 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만 결국 중점적인 정책으로 집행되기 시작했다. 메이지유신 직후 일본은 막부체제 하에서 조선외교를 담당하던 대마번주로 하여금 조선정부에 천황정권의 성립과 신정부가 외교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통고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의 외교문서가 전과 달라 이를 거부했는데 이른바 ‘서계문제’¹⁴⁾가 발생하여 대일외교재개는 지연되었다. 그 이후 메이지정권에서 ‘廢藩置縣(1871)’을 단행하자 대마번도 폐지되고 조선과 관련된 외교권이 모두 중앙정부의 외무성으로 귀속되었으며 여기서 대조선외교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정한론이 구체적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 하고 급기야 강화도에 운요오호가 나타난 것이다.

근대 서구가 아시아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침략적 속성을 지니고 있듯 일본 또한 이를 모방하여 근대를 추진했기에 역시 대외적으로 침략적 속성을 지니게 된 것은 일반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침략적 속성의 맹아는 일본의 개항과 근대수용 이전에 이미 자라나고 있었던 것에서 보듯 한일관계사에서의 특수성 또한 지닌다. 즉 일본 내에서 조선에 대한 우월의식은 에도시기 의례개혁논쟁에서부터 있어왔고 조선침략 의도는 시기적으로 양상은 다르지만 사실상 항구적이었으며 이것이 메이지유신 전후로 전면 부상하였다 할 수 있다. 이것이 통신사행과 수신사행의 연관성을 살피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이다.

수신사는 일본이 운요오호 사건을 일으켜 조일수호조규를 맺은 후 그들의 요청에 의해 일본으로 간 외교사절의 명칭이다. 이름은 조선 조정

13) 이는 메이지시대의 정객들 대다수가 정한론자라는 점에서 명백하다.

14) 1868년 일본은 대마도주 소우 요시아키라(宗義達)로 하여금 메이지 정부가 성립되었음을 조선에 알리도록 했다. 이때 대마도주가 동래로 보낸 서계에 담긴 글 중에서 皇, 朝臣, 左近衛少將 등의 문구가 들어 있어 동래부사 정현덕은 항식과 향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자체를 거부했다. 여기서 서계문제가 발생한다. 이 서계를 전달 한 일이 사실상 대마번이 담당했던 최후의 외교임무였다.

에서 결정했지만 그 본질적 성격은 일본 정책의 영향에 의해 규정된다. 통신사란 명칭이 수신사로 바뀐 것은 에도 막부의 대조선외교정책이 폐기되고 메이지 정권의 새로운 정책이 입안·실행된 징표라 할 수 있다. 물론 형식에서는 통신사행의 交隣원칙의 연장선상에 있었지만 본질에서는 에도시기 양국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한 선린의 원칙과 방식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운요호 사건과 수신사 파견은 통신사행에서 이어져온 의례논쟁이 정점에 도달하여 발생한 것으로, 통신사 교류 중심의 양국외교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이 문제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조선인식, 조선의 일본인식이 집약된 근본적인 논쟁지점을 담고 있었다.¹⁵⁾ 그 파급효과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실로 막대하다.

3. 수신사행에 나타난 제도와 형식상의 변화

앞에서 의례문제를 중심으로 살핀 결과 두 사행은 깊이 연관되어 있

15) 의례개혁논쟁으로 갈등을 일으킨 쪽은 일본이었으나 그에 대응하는 조선의 태도도 지나쳐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 문제를 대하는 조선 또한 원인제공의 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우선 화이론에 기반하여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의식으로 통신사행을 다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의 통신사행록에서 보이는 시각은 스스로 중화라는 시각에 사로잡혀 일본의 변화하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포착하지 못하고 경시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실 이러한 시각이 의례개혁논쟁과 서계문제를 지혜롭게 풀지 못하고 경직된 태도로 대응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일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운요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최악의 결과이다. 통신사행을 통해 조선은 화이론 대신 균형있는 관점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일본을 인식하는 단계에 근접했으며 이는 그 바탕에 방대하게 축적된 일본지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축적된 일본지식과 진전된 일본인식을 토대로 충분히 변화하는 일본에 대한 분석과 대비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역시 그것이 정치적 판단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통신사행을 통해 의례논쟁이 발단되었으며 수신사행을 통해 의례논쟁이 매듭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수신사행에 이르러 외형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변화된 점이다.

가) 상이 묻기를, “이번에 가서 보니 전일의 통신사의 행차 때와 비교하여 접대하는 의절은 어떠하던가?” 하니, 김기수가 아뢰기를, “대동소이하였습니다.”¹⁶⁾

나) 신헌이 아뢰기를, “쿠로다 키요다카(黒田清隆)의 말에, 6개월 안에 즉시 사신을 보내 한편으로 回辭하고 한편으로 그 풍속을 체탐하며 또 한편으로 유람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아카마가세키(赤間關)의 화륜선을 타고, 아카마가세키에서 도쿄까지는 7~8일이면 도착할 수 있으니 별반 노고가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이는 통신사를 보내는 것인가?” 하니, 신헌이 아뢰기를, “品秩의 常例에 구애받지 말고 다만 일을 아는 사람을 보내라 합니다. 이제부터 피아의 사신은 모두 禮幣를 없애고 저곳에 가면 방세를 주고서 거처하고 밥을 사서 먹으니, 이것은 통신사와 다른 점입니다.”¹⁷⁾

가)는 강화도 조약이후 합의한 대로 파견된 수신사행의 정사 金綺秀가 사행 후 복명시 고종 앞에서 한 말이며, 나)는 이보다 먼저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조선측 접견대관이었던 申櫛이 조약체결직후 고종에게 복명하는 자리에서 나눈 대화이다. 김기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대동소이한지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일본정부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에서 이렇게 답했으리라 추측된다. 반면 사행을 다녀온 체험에서 우러난 김기수의 판단에 비해 신헌이 보여준 사태변화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분명하다.

16) 『日省錄』 高宗 13年 6월 1일, 上曰: “今既往見, 以前通信使之行, 接待之節何如?” 使曰: “大同小異矣.”

17) 신헌, 김종학 옮김, 『沁行日記』, 푸른역사, 2010, 308-309쪽.

신헌이 직접 한 말과 고종에게 전한 쿠로다 키요다카(黒田清隆)의 말은 곧 떠나게 될 수신사의 차이를 간명하게 지적하였다. 우선 통신사행의 선발에 관한 차이에 관한 언급이다. 벼슬의 품계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꾸밀 것이라 했는데 문재에 능한 이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양국 간의 새로운 외교를 잘 담당할 사람으로 선발해야 된다는 일본 측의 강한 요구에 의한 것이다. 다음, 모든 예폐를 폐지할 것. 이는 예로부터 그 폐해를 지적하여 축소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던 것으로 결국 수신사에 이르러 실현되었다. 마지막으로 해당 나라에서의 숙식을 자국의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지적도 사실 일본 측이 에도시절부터 조선통신사를 접대하면서 국고를 낭비하니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백 년간 이어온 의례개혁논쟁의 결과였다.¹⁸⁾

한편 쿠로다 키요다카가 언급한 火輪船은 후술하겠지만 운송수단을 비롯하여 사행의 전반적 방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가 타고 가던 목선 대신 일본이 제공한 증기기관선이 조선의 사절을 실어 나르게 됨에 따라 속도와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통신사행의 왕환기간이 짧아질 수 있었다. 조선말기 수신사의 사행방식은 이와 같이 근대적 운송수단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속도만큼 빠르게 변화했다.

사실상 이러한 변화도 일부분에 불과하다. 통신사행과 수신사행 사이에는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것은 곧 중세체제를 붙들고 있는

18) 그럼에도 수신사행록을 보면 일본이 조선사신에 대해 극진한 대접을 하였다. 일본은 화륜선과 각종 신식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도쿄에 머무는 사신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으로서는 이전의 통신사행에 비하면 그 부담은 훨씬 줄어든 것이다. 사행원의 수가 사오백 명에서 70여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대마번에서부터 에도에 이르기까지 각 번에서 담당할 향응비용이 거의 모두 없어졌다는 것만 보아도, 이전 통신사행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기에 통신사행이 양국 간에 최소 2년의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에 비해 수신사행은 결정난지 불과 몇 달 만에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과 근대문턱을 넘은 일본이 새롭게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한 불균형이기도 하다. 그 차이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앞서 잠시 언급한 바 있듯 대마도의 외교적 가교역할이 소멸되었다는 점이다. 통신사는 대마도가 가교역할을 하면서 조선과 에도막부 사이의 외교업무를 진행하였다. 반면 수신사는 메이지 정부가 폐번치현을 단행한 결과 대마도의 역할이 사라지고, 대신 조선과 일본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외교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은 행정실무적, 절차적 차원에서 변화에 머물지 않고 외교의 관례 즉 국서와 호칭의 문제로 확대되며 나아가 상호인식의 충돌을 동반한 사건이다.

조선후기 통신사행은 대마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¹⁹⁾ 임진왜란 직후 대마도는 국서를 개작²⁰⁾하면서까지 외교관계를 복원하려고 애를 썼는데

19) 『통문관지』 「교린」 상, “日本國王의 使臣이 나올 때에는 다만 上船과 副船만을 허락하였으나, 뒤에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는 관례가 없어지고, 일이 있으면 對馬島의 倭人들이 關白의 뜻이라고 하여 大差倭를 정하여 보내었다.” 임진왜란 이후 대마도측의 끈질긴 사절 파견 요청에 따라 1604년 조선에서 승 유정과 손 문홍을 대마도에 파견하면서 강화교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사절은 대마도에 부산 무역허가를 알리고, 동시에 계획적으로 일본 국내사정의 정찰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대마도주 소우는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우두머리인 야나가와, 승 玄蘇 등과 함께 동반하여 교토에 가서 이에야스와 히데타다(秀忠)를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조선과 막부와의 관계가 복원되었다. 이일을 계기로 대마도주는 양국통신의 담당자로 지명되어 가업으로 한일관계를 담당하였다. 김양기, 「조선통신사 400주년의 경위와 이에야스의 평화외교」, 『조선통신사연구』 제 4호, 조선통신사학회, 2007.6. 참조.

20) 1635년 에도막부는 이른바 야나가와 사건을 처리하면서 외교지위 계통의 확립과 외교상의 칭호문제를 해결하였다. 야나가와 사건은 국서개작 폭로사건으로 대마도주 소우와 그의 가신 야나가와(柳川調興) 간에 발생한 알력이 발단이 되어 30여 년간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 장군 사이에 왕래한 국서를 개작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사건을 이른다. 막부는 국서개작 폭로사건의 처리에서 대마도주의 승소로 관철하여 대마도주의 지위를 확립시켜줌으로써 대조선 외교를 대마도주 소우에게 일원화 시켰다. 대신 대마도의 이정암에 조선과 외교문서를 직접 취급하는 승려를 파견하여 대조선 외교문서를 막부가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이정암윤번제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도쿠가와 막부는 대조선 외교체제의 개편을 단행하여 막부-대마도주-조선왕조라는 외교라인을 확립하였다.

이는 물론 조선과 무역을 통해 살 수 밖에 없는 대마도의 지리적 운명 때문이었다. 초기 대마번주는 이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에도막부의 인정을 받아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에 따른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서교환 및 통신사행의 수행 등 사행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대마도가 담당한 것이다. 그만큼 통신사행에서 대마도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그런데 대마번이 폐지되고 외무성이 대조선 외교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의 왕정복고를 알리는 서계가 동래에서부터 접수가 거부되자 일본은 급기야 군함을 동원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로 결정하고 운요호를 파견한다.²¹⁾ 이점에서 보면 운요호 사건은 가깝게는 서계문제, 멀게는 의례개혁논쟁의 비극적 결말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서계문제는 국제정세와 일본의 변화와도 얽혀 있어 기존의 대일관계가 사상과 제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메이지 정부는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요청하는 서계를 보내면서 이전의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사사로운 관계로 규정하였다.²²⁾ 이는 조선과 에도막부 간 이루어진 통신사행의 외교적 위상을 격하시키거나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견문 혹은 여정방식의 변화이다.²³⁾ 앞서 언급했듯 화륜선의 등장으로 출발에서부터 도착에 이르는 시간과 노정, 그에 수반되는 견문의 양상 등이 대거 바뀐다.²⁴⁾ 이 점은 특히 기록상에 큰 변화를 일

21) 강화도 조약 이전 조선에서도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진행하면서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다. 1874년 7월 왜학훈도 현석운에게 일본과의 교섭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곧 모리야마 시게루(森山 茂)와 회담을 가졌으나 역시 그 이전에 있었던 서계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결렬되고 말았다.

22) 『龍湖閑錄』第二十冊, 「對馬島主書契及大修大差倭 平和節書契別幅謄本」, “今般別使書翰, 押新印以表朝廷誠念, 貴亦宜領可. 舊來受圖事, 其原由, 全出厚誼所存, 則有不可容易改者. 雖然即是係朝廷特命, 豈有以私害公之理耶?”

23) 정훈식, 「사행록의 역사적 전개와 일동기유」, 『열상고전연구』 2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24) 실제로 김기수는 왕에게 복명하는 자리에서는 통신사와 대동소이하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그의 기록에는 통신사행록과 차이나는 점을 곳곳에 밝혀두었다. “대

오켰다. 기록의 변화는 일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일대 변화를 가리킨다. 메이지 유신 이전 통신사행록과 수신사행록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일본에서 서양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애초에 조선은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이고 부분적이거나 서양을 만나고 서양문물과 서적을 접해왔다. 이를 통해 서양의 존재와 서양의 문물에 대하여 인식을 넓히고 지식을 축적해 왔다. 그러던 것이 수신사행을 통해 서양을 만나는 곳이 일본으로 전면 바뀌었다. 이제 일본에서 서양의 근대문물을 보고 일본에 와 있는 서양각국의 공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중국의 관료조차 일본에서 만나게 되었다.²⁵⁾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일본에서 서양을 비롯한 세계정세에 대한 정보를 더 증점적으로 입수하게 된다는 점이다. 문화의 시혜자 입장에서 이제 수용자 입장으로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세 번째는 문사교류의 축소와 소멸이다. 통신사는 일본 문인 학자들과 술한 필담을 전개하면서 문학 및 학술 토론을 전개하였다.²⁶⁾ 이를 통해 양국의 문학교류와 학술담론을 토론하고 그것이 자국의 문학과 학술에 퍼지면서 영향을 끼쳤다. 반면 수신사는 일본의 정치인들과 만나 양국의 현안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목적은 표면상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과 통상에 있었다. 1차 수신사 기록인 김기수의 『일동기유』에는 더러 시문창화가 있으나 여기에는 일본 정객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만이

마도는 종전에도 사신이 반드시 지나가던 곳인데, 이번 걸음은 큰 바다를 배로 건너가게 되니, 가끔 나타나는 섬은 전연 관계없이 지나가버린다.”(『일동기유』, 「정박」) 이렇듯 『일동기유』 자체가 통신사행록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 25) 2차 수신사행시 김홍집은 주일청국공사 황준헌을 만나고 필담을 나눈다. 황준헌은 김홍집에게 『조선책략』을 건네면서 주변정세와 조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책과 황준헌을 만나 나눈 필담인 「대청홍사필담」은 그의 『수신사일기』에 실려 있다. 고려대중앙도서관편, 『金弘集遺稿』, 고려대출판부, 1976.
- 26)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94-186쪽;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사, 2006.

난무하고 이에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조선사신은 교린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원칙적인 대응이나 회피로 일관한다. 일본정객들이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말한 또 하나의 담론은 러시아 위협론과 동아시아 연대론 등의 국제정세에 대한 그들 나름의 판단과 대응논리이다. 교린의 목적이 사라지고 오로지 급박한 정치외교적 현안만이 수신사행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통신사행을 통해 이루어진 문사교류에서 조선 측은 거의 시혜적 입장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본의 유력한 지식인을 만나면서 학문의 경향과 수준 등을 파악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막부정권에 대한 탐색도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반면 수신사행을 통해 일본 정객들만 만나 그것도 일방적으로 말을 들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다. 일본 측에서는 치밀하게 준비한 대조선정책의 결과로 할 말이 많았던 반면, 조선은 그사이 일본에 대하여 거의 무대책으로 일관하였기에 할 말이 없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이점 또한 수신사행의 문학-문화적 성격을 살피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변화지점이다.

4. 수신사행록을 통해본 일본인식과 지식의 구성 양상

1) 지식추구의 목적: 備倭없는 修信과 조선 개혁

조선조에서 비왜는 중국, 북방정책과 함께 최우선의 대외정책이었다.²⁷⁾ 때문에 조선통신사에 부여된 최우선의 임무도 비왜를 위한 정보탐색이었다. 교린은 사실상 비왜를 위한 방법이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시대를 초월한 항구적인 성격을 지닌다. 조선후기의

27) 정훈식·남송우, 앞의 논문(2009).

통신사행이 비왜를 일본지식 추구의 목적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여러 임무를 수행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일본지식을 축적하고 일본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수 있었다. 반면 통신사행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비왜에 대한 철저한 인식도 서서히 약화되었다. 홍대용, 정약용 등 조선 후기 학자들 중 다수가 일본의 문풍이 날로 발전하는 것을 근거로 일본이 당장은 침략할 의지나 의도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에 이른다.²⁸⁾

그러나 정세는 이들의 호언이 무색할 정도로 급변한다. 물론 이는 서세동점이 격화되는 시대적 정황과 관련이 깊다. 조선의 해안에 프랑스(1866), 미국(1871)의 함대가 차례로 무단 접근하여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대원군집정기 동안 척화론이 조야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다시 외침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면서 대외방어책은 조정의 핵심현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斥洋論은 사실 비왜론과 맥을 같이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시기 일본과는 교린정책에 의해 실무적 수준의 사신을 파견하고 서신을 주고받을 만큼 기본적인 외교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丙寅洋擾 이후 일본에 이 사실을 알리며 잘 방비할 것을 바라는 서계를 보낸 것에 의하면²⁹⁾ 조선과 일본은 서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 보인다. 그러기에 비왜는 적어도 당시에는 조선에서 중점적인 논의로 떠오르지 않았다. 즉 攘夷와 備倭는 별개의 사안이었던 것이다.³⁰⁾

28) 홍대용, 『日東藻雅跋』, 『담헌서』; 정약용, 「일본론」, 『다산시문집』.

29) 『조선왕조실록』 고종 3권, 3년(1866) 10월 15일. 「이양선의 문제로 일본에 편지를 보내다」

30) 그렇다고 조선이 일본의 정한론에 대해 무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선 또한 일본의 정한론을 잘 알고 있었고 일본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른바 ‘야도 마사요시(八戶順叔)’ 사건이 이를 말해준다.(중국에 간 사신을 통해 일본국의 客人 야도 마사요시가 일본이 조선을 칠 것이라는 풍문을 퍼트렸다는 사건. 『조선왕조실록』 고종 4년(1867) 3월 7일. 참조) 다만 대원군집정기와 고종 친정체제에서의 일본에 대한 대응정책에서 차이점이 있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일정책상 일정한 난맥에 빠지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문학과지성사, 2001, 148-262쪽.

그런 와중에 일본은 서계문제와 운요오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과 병자 수호조규를 맺고, 새롭게 양국의 사신을 오가게 하였다.³¹⁾ 이때 고종은 1차 수신사행의 정사로 떠나는 김기수에게 명하기를 그들의 물정을 상세히 살피고 들을만한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오라고 하였다.³²⁾ 임금의 명을 받들고 사행을 다녀온 김기수의 복명을 보면 매우 부지런히 보고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기수의 복명을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이 누락되어 있는바 그것은 메이지정부의 대조선정책에 대한 정탐이다. 김기수는 공식일정 외에 비공식적으로도 일본의 주요정책을 두루 만나 담론을 나누었다. 그 스스로 친분을 쌓은 일본 인사를 기록에 남긴 자만하더라도 60여 명에 이른다.³³⁾ 이후 김홍집, 박영효 또한 거의 동일한 일본 정책을 만났다.³⁴⁾ 하지만 그 내막과 그들에 의해 진행되는

31) 교린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의 정책적 판단은 여전히 서계문제와 일본의 洋夷化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정치적 판도에서 불가피한 방향이었다고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강화도조약을 맺고 그 직후 다녀온 수신사행의 역할이었다.

32) 『일성록』 고종 병자 4월 4일자, 『고종실록』 고종 13년 4월 4일자.

33) 「結識」, 『일동기유』, 민족문화추진회, 1977, 393-401쪽. 이 중에서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쿠로다 키요다카(黒田清隆), 모리 아리노리(三有禮),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은 메이지정부에서 정한론을 이행했던 핵심적인 관료들이다. 김기수는 명치정부의 일급 인사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서 받은 인상과 기억나는 그들의 말을 기록했다. 이들은 수신사에게 철저히 자신들의 심중을 감추고 겉으로 문물개화와 조선과 일본의 연대를 이야기했다. 이로 인해 정작 그 인물들의 사상과 정책, 총체적으로는 그들이 움직이는 메이지 정권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34) 이는 사행의 시기적 간격이 짧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대조선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특이한 것은 김홍집이 일본정책 외에 주일대청공사 황준헌을 만나 『조선책략』을 가져와 조선 조야에 일대 파문을 일으킨 일이다. 『조선책략』이 퍼지면서 조선은 대외정책을 두고 극렬한 논쟁을 시작한다. 이만손 등의 영남유생은 상소를 올려 왜양일체를 주장하며 극력배척할 것을 주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으로 인해 '비왜'가 조야의 시급한 사안으로 재부상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수신사행은 여전히 비왜 문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4차 수신사행 정사 박영효는 오히려 메이지의 학자

대조선정책의 핵심은 간파하지 못하고 돌아왔음을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2차 수신사³⁵⁾로 다녀온 김홍집이 복명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언급되었다.

임금이 묻기를, “몇 해 전에 薩摩州 사람이 우리나라에 침범하려고 하는 것을 그 나라의 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가 막아서 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가?”라고 하니 金弘集이 아뢰기를, “이 말은 정말 확실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淸나라 사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비록 여러 청나라 사신에게 미처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岩倉具視를 만나 이 문제를 언급하니 그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임금이 묻기를, “그들의 동정을 살피건대 그 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과연 악의가 없던가?”라고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현재 본 바로서는 아직 가까운 시일 내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 이 문제에 대하여 청나라 사신에게 물어보았는데 역시 실정이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³⁶⁾

여기서 살마주 사람이란 큐슈 가고시마 출신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를 말한다. 그는 메이지 유신으로 지위와 생계를 잃은 무사의 불만을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나 개화사상을 더욱 확고히 받아들인다.(박영효, 『사화기략』, 민족문화추진회, 382쪽.)

35) 2차 수신사 파견의 배경에는 미곡금수, 공사주경, 인천개항 등 현안문제 해결과 일본공사 來韓의 답례(『承政院日記』, 고종 17년 5월 28일.)라고 하였지만 이미 花房義質의 내한이 세 차례(1877년 10월, 1878년 11월, 1879년 윤3월)가 있는 후여서 이 때 수신사 파견의 실질적 목적은 일본에 대한 객관적 정보수집에 더욱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36) 『고종실록』, 고종17년, 8월 28일. 教曰:“年前薩摩人, 欲向我國, 而其大臣岩倉具視抑之, 使不得逞此事, 眞然乎?” 弘集曰:“此說誠確矣.” 教曰:“問於淸使, 可以詳知也.” 弘集曰:“雖不及問諸淸使, 而見岩倉具視, 言及此事, 則自謂實有是事云矣.” … 教曰:“察其動靜, 彼國於我國, 果無惡意耶?” 弘集曰:“以今所見, 姑無近慮. 臣以此事問於淸使, 亦以爲實情則然矣.”

조선을 치는 것으로 해소하자고 주창한 정한론의 대표자이다. 고종과 김홍집의 문답을 보면 조선은 정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치밀한 내막은 명확히 감지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일본에 대한 소극적 외교를 펼치던 조선 자체의 탓도 있겠지만, 특히 일본의 위장술이 조선의 관심과 시야를 흐리는 데 일조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위협론, 조일연대론, 근대문물제도 수용의 당위성 등을 마치 세뇌하듯 조선 관료들에게 쉬지 않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심중에 있는 침략 의도는 숨겼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전보다 더한 융숭한 대접을 받자 조선 사신들은 적지에서부터 경계심이 풀어져 일본은 아예 방비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강화도 조약 당시 조선의 교섭대표였던 신현이 조약직후 고종에게 복명하는 자리에서 고종에게 일본이 조선도 부국강병으로 나갈 것을 주문하는 말을 전했다. 고종은 이 말을 듣고 그 치밀한 전술을 간파하지 못한 채 일본의 진심어린 충고라고 여겼다.³⁷⁾ 이렇듯 당시 조정은 서세동점이 격화되는 시기에 일본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한 경계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대일본 경계가 허술한 틈새로 일본은 대대적인 공작을 전개한다. 위에서 말한바 부국강병을 위해 조선도 근대문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공작을 추진한다. 수신사행은 바로 이러한 일본의 책략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일본이 수신사행을 요청한 주된 목적의 하나는 조약의 세부항목 즉 관세와 개항 문제를 확정하고자 한 것이지만, 또한 근대로 탈바꿈하는 일본의 여러 기관과 기물을 보여 주며 이에 대한 경외감을 조성하고 조선으로 하여금 근대문물 수용의

37) 『승정원일기』 1876년 2월 6일자. 신현이 아뢰기를, “저들이 말하기를, ‘지금 천하의 각국이 군사를 쓰는 때를 당하여 귀국의 산천이 매우 험한 것으로는 싸우고 지키기에 넉넉하나 군비가 매우 허술하다.’ 하며, 부국강병의 방법을 누누이 말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교린하는 성심에서 나온 듯하다. 우리나라는 군사의 수효가 매우 모자란다.” 하였다.

기반을 닦는 한편, 나아가 조선 내에 친일적 인사를 포진시키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있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선을 자기의 영향권아래 두고자 한 것이다.³⁸⁾

조선 또한 비록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이긴 했지만 수신사행을 보내는 나름의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 수신사행을 보낸 고종의 하명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경계 의도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일본의 근대적 문물과 그에 상응하는 국력 등을 탐색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 고종은 일본과의 통교를 통해 정치권력의 장악과 개혁정책을 동시에 추구했던 것이다.³⁹⁾

2) 지식 구성의 논리적 기반과 방법: 東道西器에 바탕을 둔 視察과 留學

1763년 계미통신사행 이후 100여년 만에 도쿄에 가는 사행은 그간의 일본의 변화상과 새로 성립된 메이지정부의 실상을 통해 등을 살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 같은 의도가 순탄하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다. 우선 1차 때의 사신 김기수는 고종의 심중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수신이라는 용어에 얽매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2차 때의 김홍집 또한 현안처리에 쫓긴 나머지 충분히 일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그러

38) 이점에서 보면 친일파 형성의 기원을 수신사행에서 찾을 수 있다. 高永喜(1차 수신사행시 일본어 통역), 尹雄烈(2차 수신사행시 군관), 朴泳孝(4차 수신사행 정사) 등 다수의 인사가 후에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친일부역행위를 했다. 즉 수신사행의 주요 인사들이 친일파 1세대이다.

39) 고종 또한 일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은 대원군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원군과는 상반되는 정책을 펴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과의 새로운 통교를 시도한 것이다. 대원군계열인 동래부사는 일본의 왕정복고와 명치일본의 성립을 알리는 서계의 접수자체를 부정했지만 고종과 박규수 등은 일단 접수하고 추후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일본과의 통교가 최선의 비책이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대문물도입에 한층 추진력을 얻으려고 했던 의도 또한 뚜렷하다.

나 그는 적어도 개화와 부국강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일본사행에 임했다. 기록에 비친 그의 사행경험은 바로 개화에 대한 의지와 근대 일본에 대한 뚜렷한 인식으로 가득 찼다.⁴⁰⁾

3차 수신사에 관해서는 정사로 떠난 조병호는 물론 사행원의 기록이 전해오지 않아 자료를 발굴해야할 과제가 앞선다. 그런데 3차 수신사행이 떠나기 직전 1881년 4월부터 윤7월까지 메이지 일본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찰할 목적으로 朝土視察團을 파견하였다. 이로 추측해보면 3차 수신사는 실무적 현안을 처리하는 사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종 실록, 승정원일기 등에서조차 단순한 사실기록만 있어 크게 의미있는 사행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오히려 조사시찰단이 남긴 방대한 기록이 이시기 일본지식의 구성과정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점 또한 수신사행에서 보이는 특징적 면모라 할 수 있다. 수신사행은 애초에 통신사의 경우와 같이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외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런 점은 사행의 인원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욱더 심화되었다. 때문에 애초에 목적이 일본을 통해서 근대를 살피고자 한 목적이 크게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시찰단을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행의 역할이 분야별로 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수신사행의 지식구성 방법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留學이라는 새로운 지식수용의 방식이 도입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1881년 조사시찰단의 일원인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함께 간 유길준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게이오 의숙에 유학하면서 우리나라 최

40) 2차수신사의 파견은 겉으로는 미야모토 오카즈,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등이 조선에 사절로 몇 차례 온 것에 대한 답례와 관세징수, 미곡금수, 인천개항, 공사주경 등 양국 간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일본 러시아의 침략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서양열강과 조약을 맺고 통상할 것을 권한 이홍장의 1879년 7월 9일자 밀함과 관련한 일본의 동정파악과 일본의 개화문물 시찰에 있었다.

초의 유학생이 탄생하였다. 같은 해 3차 수신사행에서도 조병호가 조선 학도를 일본에 유학할 수 있도록 주선한 일도 있다. 또한 이듬해 4차 수신사행 중 정사 박영효는 수행원을 일본에 유학할 수 있도록 당시 일본 의무경인 이노우에 카오루 등 주요인사에게 요청하였다.⁴¹⁾ 즉 근대적 의미의 유학은 수신사행에서 비롯되었다.

사행을 통해 유학생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본 지식의 구성 방법에서 전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집중적이고 압축적인 방식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학을 통한 지식구성의 특징이 있다. 몇 달간의 사행이나 시찰과는 달리 인재를 보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온전히 배워오거나 혹은 일본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섭렵해 오기 위해 훨씬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이다. 이는 당시 조선이 처한 급박한 상황에서 시급히 개혁을 추진하고 근대문물을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방법이라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적 전환은 사실 고종과 개화지식층의 의중이 담긴 것이다. 고종은 1882년 8월 5일, 그러니까 4차 수신사행이 떠나기 직전 전교를 내리는데 여기에 수신사행의 지식구성의 논리적 기반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의 핵심은 대원군이 전국각지에 세운 척양비를 뽑아버리라는 명이다. 그러면서 고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交隣에 방도가 있다는 것은 경전에 나타나 있는데, 우활하고 깨치지 못한 儒者들은 宋 나라 조정에서 화의를 하였다가 나라를 망친 것만 보고 망령되어 끌어다 비유하면서 번번이 척화의 논의에 붙이고 있다. 상대쪽에서 화의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쪽에서 싸움으로 대한다면 천하가 장차 우리를 어떤 나라라고 할지를 어찌하여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 그리고 기계를 제조하는 데 조금이라도 서양 것을 본받는 것을 보기만 하면 대뜸 사교에 물든 것으로 지목하는데, 이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

41) 박영효, 앞의 책, 382쪽. “생도 박유평과 박명화를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세운 사립학교(게이오의숙)에 입학시켜 어학을 익히도록 하였다.”

한 탓이다. 그들의 종교는 사교이므로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美色처럼 여겨서 멀리하여야겠지만, 그들의 기계는 이로워서 진실로 利用厚生할 수 있으니 농기구의약병기배수레 같은 것을 제조하는데 무엇을 꺼려하며 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종교는 배척하고, 기계를 본받는 것은 진실로 병행하여도 사리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더구나 강약의 형세가 이미 현저한데 만일 저들의 기계를 본받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저들의 침략을 막고 저들이 넘보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안으로 政教를 닦고 밖으로 이웃과 수호를 맺어 우리나라의 예의를 지키면서 부강한 각 나라들과 대등하게 하여 너희 사민들과 함께 태평 성세를 누릴 수 있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⁴²⁾

요지인즉 서양각국과 수교하는 것은 조야가 주장하듯 사교를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문제며, 마찬가지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교와 관련없는 문제로, 그들의 종교는 막아야 하지만 그들의 이로운 기계는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른바 ‘동도서기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곧 고종이 일본과 병자수호조규를 체결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수신사행을 보낸 핵심적 근거 중 하나를 찾을 수 있다. 면밀한 검토를 더 해야겠지만 곧 수신사행은 동도서기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보내졌으리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신사행록은 이러한 내막과 경과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5. 마무리

조선시대 대일외교의 틀이자 일본지식 생성의 핵심적 창구였던 통신사행이 종결되고 대신 수신사행이 대일외교방식으로 정해진 것은 대일외교의 제반 조건의 변화를 상징한다. 그러나 변화는 여기에 한정되지

42) 『고종실록』, 고종 19년 8월 5일자.

않고 지식-문화적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일어났다. 곧 수신사행은 조선의 지식기반 자체가 바뀌는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들어오는 지식은 곧 현재 지식체계의 원형질이 되었다. 수신사행록은 전근대적 지식체계를 근대적 지식체계로 바꾸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사행을 통한 지적체험과 지식 형성의 메커니즘이 도달하는 파급지점이다. 이는 단순히 문학-문화적 의의를 지니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곧 대외교류를 통해 수용되는 지식은 당대의 정치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공동체의 운명에 관여한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전근대 연행록과 통신사행록 그리고 수신사행록 등은 그러한 실제 정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생생한 텍스트이며 현재에도 그 의의는 줄어들지 않는다 할 것이다.

수신사행은 일본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발생한 대일외교사절로 이를 통해 전통적 교린관계가 해체되고, 일본과의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어 갔다. 그러나 온전히 일본의 의도에 의해서 발생한 것만은 아닌 것이 조선도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수신사행을 일본에 보냈기 때문이다. 4차례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을 새롭게 이해하고, 일본을 통해 새로운 문물과 지식이 들어왔다. 그를 통해 조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수신사행록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대중앙도서관편, 『金弘集遺稿』, 고려대 출판부, 1976.
- 김기수, 『일동기유』(국역 『해행총재』X), 민족문화추진회, 1977.
- 박영효, 『사화기략』(국역 『해행총재』XI), 민족문화추진회, 1977.
- 정약용, 국역 『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1983.
- 홍대용, 국역 『담헌서』, 민족문화추진회, 1974.
- 『승정원일기』, 『龍湖閒錄』,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통문관지』
- 강재언 지음, 이규수 옮김,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2005, 217-244쪽.
-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
- 김양기, 「조선통신사 400주년의 경위와 이에야스의 평화외교」, 『조선통신사연구』 제4호, 조선통신사학회, 2007.6.
-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문학과지성사, 2001, 148-262쪽.
- 김윤식, 「한국인의 일본관-일동기유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2집, 한국일본학회, 1976.
- 김태준, 「일동기유와 서유견문- 서두름과 지리함의 비교문화론」, 『비교문학』 16집, 한국비교문학회, 1991.
- 신현, 김종학 옮김, 『沁行日記』, 푸른역사, 2010, 308-309쪽.
-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260-261쪽.
-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94-186쪽.
- 정응수, 「조선사절이 본 메이지 일본」, 『일본문화학보』 45집, 2010, 311-328쪽.
- 정훈식, 「사행록의 역사적 전개와 일동기유」, 『열상고전연구』 2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255-285쪽.
- 정훈식·남송우, 「조선후기 일본지식의 생성과 통신사행록」, 『동양한문

- 학연구』 29집, 동양한문학회, 2009, 391-422쪽.
- 조항래, 「병자(1876)수신사행과 대일인식」, 『강좌 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 하우봉, 「개항기 수신사행에 관한 일연구」, 『한일관계사연구』 10집, 한일관계사학회, 1999.
-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5, 139-148쪽.
-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 2005.

<Abstract>

Susinsaengrok and The reconstitution of the knowledge about Japan in Modernizing Period

Jung, Hun-Sik

The aim of this letter is focusing on The reconstitution of the knowledge about Japan in Susinsaengrok on Modernizing Period of Korea.

Susinsaeng is closely connected to arguments over ritual in Tongsinsaeng. Susinsaeng has been changed as follows. First, Tsushima's role in bridging between Chosen and Edo Bakuhu was abolished in period of Meiji. Secondly, literary exchange which had been brisked in Tongsinsaeng was reduced and dissipated. And finally, An itinerary and experience of this journey was changed. Because they traveled by a new transportation, Hwaryunseon(a steamer) and train.

The new generation of the knowledge about Japan in Susinsaengrok is as follows. The purpose of the knowledge about Japan is to Susin(修信) and reformation of choseon. The Japanese knowledge through this kind of purpose is mainly structured by making a tour inspection and studying abroad.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knowledge about Japan is based on a certain specific recognition, which are so called Dondoseogi(東道西器).

Key Words : Susinsaengrok, The knowledge on Japan, to protect against Japan, Reformation of choson, A tour inspection, Studying abroad, Dondoseogi

■ 논문접수 : 2010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11월 29일

■ 게재확정 : 2010년 12월 8일